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9 | Winter
vol. 43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9년 겨울호

시론

- 3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한몽길(27회) 부회장

신입학장 인사말

- 5 동문들의 약대 발전 염원이 진정한 약대의 발전으로 현실화되도록 이재휘(33회) 약학대학장

동문회소식

- 6 화보
- 8 태풍도 비껴간 가을 하늘에 울린 함성
개교 100주년 기념 중앙약대 동문회 및 제48회 모교의날 체육대회
- 12 제1회 약학포럼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전략
최병철(21회) 부회장

동기회소식

- 16 옹평 드래곤밸리의 아름다운 추억
조택상(12회) 동기회장
- 18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이제는 천천히 가자
강희윤(22회)
- 21 공부도 운동도 우정도 늘 열심히었던
우리 동기들!
이경우(32회) 동기회장

동기회소식-특별기고

- 23 졸업50주년기념 1박2일 여행을 마치며
고승하(63동기회 1박2일여행 추진위원장)
김창중(63동기회 자문위원장)

별난동문이야기

- 29 道法自然 -전각과 서예의 길을 통해
진정한 약사로 태어남
허규(22회)

동문이야기

- 31故 윤규영 동문 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학교소식

- 32 2019학년도 약학대학 실무실습 O.T 및
White Coat Ceremony

34 회비내역

36 만평

37 장학기금

38 편집후기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모두 새해에는 원하시는바 모두 성취하시고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역시 우리 약업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약 품목조정이며 약대 통합 6년제와 관련된 증원 문제, 그리고 한약사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아직도 어느 한 가지 제대로 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그 어떠한 고난과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졸업 후 제약회사에서 10년간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인연으로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주로 국회에서 우리 약사회와 관계있는 법안검토 및 법안발의, 그리고 법안통과 등이 주된 업무로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며 일을 해야 하는 약사회 국회담당 임원을 맡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한 봉 길(27회)
부회장

20대 국회(2016년 6월~) 회기 중 약 3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우리 약사들이 누려왔던 기존 권리를 틈만 나면 상대단체에서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럼으로써 약사들의 전문적인 직능과 관련된 권리를 같이 누리거나 빼앗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통해 새로운 약업시장 개척과 약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무원려 난성대업(人無遠慮 難成大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뜻의 논어에 나온 말로써 안중근 의사께서 여순 감옥에서 남긴 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정부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여 앞날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더욱 참고해야 할 중요한 화두로 생각합니다.

법인약국, 의료민영화,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은 불씨로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약사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대비를 해야지요.

다행히 우리 약사회는 타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가장 단결이 잘되고 의외로 어려울 때 잘 뭉쳐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회 내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대약, 지부장 선거 때도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갈등과 불씨가 봉합되어 약사사회 전체를 위한 정의로 되살아나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약사회는 일치단결된 모습을 통해 새로운 직역창출과 약권수호를 위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후배약사들에게도 약사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보장된 앞날이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 번 새해에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동문들의 약대 발전 염원이 진정한 약대의 발전으로 현실화되도록



이 재 휘(33회)
약학대학장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2019년 2월 1일부터 약학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33회 졸업생으로 2004년 3월 모교에 부임한 이래 약학대학의 발전과 재학생들 교육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자랑스러운 약학대학 동문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부끄러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모쪼록 약학대학 학장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약대 발전의 한 축인 동문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한분 한분이 갖고 계시는 약대 발전의 염원이 진정한 약대의 발전으로 현실화되도록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학대학은 커다란 변화의 전환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6년제로의 학제 개편이고 또 하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대외 위상과 최고의 약학대학이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새로운 6년제로의 약학대학 학제 개편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대와 약학대학의 대외 위상은 연구의 질적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 최고의 역량을 지닌 약사로 배출하는 것이 약학대학의 임무이자 존재의 이유이지만,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점점 대학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대학의 연구력, 즉 후대의 학생들이 배우게 될 새로운 지식의 창출 능력이 대학의 역량을 판단하는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약학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 최고의 약학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력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의 발전과 변화의 의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만들어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학교 발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己亥年 새해, 동문 선후배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오며 덕내에 평안과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

02

03

03

01 8월 21일_ 고문단 회의

02 9월 5일_ 초도이사회

03 9월 14일_ 조모카인 명예약학박사 수여식





01 02

03

04

05

- 01 10월 12일_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전략 심포지엄
- 02 11월 15일_ 멘토링 2018 성과보고회
- 03 12월 2일_ 여동문회 송년회
- 04 1월 13일_ 신년교례회
- 05 2월 19일_ 동작분회 모임



태풍도 비껴간
가을 하늘에 올린
함성



개교100주년기념
중앙약대 동문회 및
제48회 모교의날 체육대회

언제 태풍이 불었냐는 듯 모처럼 쾌청한 날씨 속에 지난 10월 7일 중대부속중학교 대운동장에서 우리 동문 300여명이 '제48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에 참여해 즐거운 땀을 흘렸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연례행사임에 더해 올해는 모교인 중앙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는 의미가 더해져 보다 풍성한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잔칫날 빠질 수 없는 이런저런 덕담을 해줄 외빈들도 당연히 여러분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마침 약사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던 터라 자칭타칭 출마 하마평에 오른 다수의 인사들도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홍종오(21회) 동문회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제48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어제까지 태풍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아주 화창한 가을 날씨라 정말 다행이다. 임기를 맡고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적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임원진은 알찬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 하나만큼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황완균(26회) 모교 학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흑석동이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는데, 우리 동문회 역시 모교인 약대의 위상 제고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올해도 장학금으로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과대학 동문회 중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혀 참석한 전체 동문들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이어 “2022년 약대가 통 6년제로 바뀌게 되는데 인원조정 문제가 쉽지 않은 만큼 동문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오늘 체육대회가 바쁜 일상 속에서 모처럼 동문, 학생, 가족이 모두 하나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참석한 내빈들을 대표하여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약바로쓰기운동 본부를 신설하여 국가로부터 10억을 보조 받을 만큼 성장시켰다. 이런 자세로 회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오늘 하루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자 전원의 간단한 몸 풀기와 대표선수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족구, 테니스, 바둑, 제기차기, 윷놀이, 생맥주 빨리먹기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가급적이면 한사람의 동문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특히 이벤트 게임으로 투호놀이와 신발던지기 게임이 큰 환호를 받았다.



체육대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청백전으로 개최된 단체줄다리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관심과 참여로 운동장의 열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추억의 박 터트리기 게임을 통해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웃고 구르고 하는 등 그야말로 야단법석의 대소동을 통해 화합과 축제의 장을 펼쳐냈다.

외부업체의 지원으로 식사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축제의 장에 빠질 수 없는 막걸리가 당연히 최고의 인기상품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많은 인원들이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이 제공된 적절한 안주가 제 몫을 했기 때문이며, 이는 언제나 이듯 특히 여동문회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동문 자원봉사자

들의 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열일 제쳐두고 참여한 재학생 후배들의 든든한 조력은 숨은 공신으로 부족함이 없이 올해도 묵묵히 굳은 일을 맡아주었다.

마지막 행운권 추첨에서도 상품 하나하나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재미의 장이 연출되었고, 어린 자녀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중복해서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본인의 선물을 다른 참가 동문에게 양보하는 미덕은 올해도 어김없이 참가한 동문들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각 경기당 배점을 합한 종합우승은 34회 동기회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으로는 39회 동기회가, 3위로는 수원분회가 선정되어 두둑한 상금

1. 바둑대회 2. 족구대회 3. 생맥주 빨리 마시기 4. 윷놀이





종목별 수상내역

- 종합우승 34회 동기회
- 준우승 39회 동기회
- 3등 수원분회
- 최다참가상 34회 동기회
- 최다참가 분회 안산분회
- 인기상 39회 동기회
- 족구 1등 : 34회, 2등 : 39회, 3등 : 26회
- 바둑 1등 : 이현희(22회), 2등 : 김상래(39회), 3등 : 강응모(18회)
- 윗놀이 1등 : 수원, 2등 : 푸른구름회, 3등 : 약리반
- 생맥주 빨리 마시기 1등 : 34회, 2등 : 9회, 3등 : 약리반
- 제기차기 1등 : 13회(성북), 2등 : 안산, 3등 : 39회
- 테니스 1등 : 김용수/문태섭, 2등 : 김보원/장원규, 3등 : 전상훈/임희원

을 받았다. 최다참가상은 우승을 차지한 34회 동기회로, 지난해에도 최다참가상의 주인공으로 밝혀져 두 배의 격려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체육대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나서 오후 4시부터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식의 일환으로 모교 약학대학으로 이동, 황완균 학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의 안내로 이전 파이프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환골탈퇴의 위용을 자랑하는 현재의 약학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약학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전공과목과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현직 약대교수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며, 학교측에서 준비한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도 관람했다. 특별히 재학생들로 구성된 칼라무스 합창반과 유니커스 춤동아리 공연이 진행되어 선후배 교류라고 하는 동문

회 본연의 모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 것이 참석한 동문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모든 행사가 종료된 후 대강당 앞 홀에서 동문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모교 교수들과 행정실 직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참여 동문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학교 측에서 준비한 풍성한 안주와 함께 거둬진 열기를 식혀줄 차가운 맥주 한 모금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후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동기회별, 지역 분회별, 아니면 이런저런 인연의 끈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소모임들이 흑석동 어디어디에 숨어있는 그들만의 작은 공간에서 축배의 잔을 부딪치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최병철 (21회)
부회장



제1회 약학포럼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의 성공전략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홍종오)가 주최하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회장 정상수)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1회 약학포럼 '국내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성공전략'이 2018년 10월 12일 오후 2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1층 세미나실에서 중앙대 약대 동문, 약대 교수 및 학생, 제약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손동헌(1회), 허인회(4회) 명예교수께서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다.

김광식(30회) 동문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홍종오 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발맞춰 바이오의약품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이 막중하다."며 "약대 동문회가 장학사업, 친목행사 등은 많이 해왔지만, 이러한 기존 사업을 넘어 동문들의 전문성과 위상제고의 일환으로 제약 바이오 학술 포럼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황완균(26회) 학장은 "최근 미래 한국의 미래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이번 포럼은 이런 시대에 부응하고자 열리는 만큼 시의적절하다"

며 "바이오의약품의 정책동향과 정책, 특허, 약가제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산업의 미래를 보는 만큼 미래의 약학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수 중앙대학교 총장은 축사에서 "중앙대학교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중앙대학교의 발전사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교수들의 학술대회는 많이 참석했지만 동문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며 "이것이 바로 중앙약대와 중앙약대 동문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동문회에서 학술포럼을 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성장동력인 제약, 바이오의약품의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도 규제개혁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즉석에서 '중앙포럼'을 이용한 4행시를 지어 큰 박수를 받았다.



대한약사회 조찬회(15회) 회장은 “약사의 직능, 특히 제약은 과거 기존 화학의약품 생산에서 바이오 의약품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고도의 전문약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라며 “바이오산업 비즈니스는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약학 포럼이 약사들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포럼이 정기적으로 열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중앙대학교에 축하를 보내며, 약대 동문회가 주최하는 소중한 제약 바이오 약학포럼이 제약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내빈 축사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인 최병철(21회) 박사가 좌장을 맡아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와 도전과제(김태억 범부처신약개발단 본부장) △최근 바이오의약품 정책방향(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 특허분쟁과 허가관계(강춘원 특허청 특허6부 심판장) △바이오의약품의 보험약가제도(김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장) △2018 제약산업 정부지원과제(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이 발표됐다.

모든 연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김수배(21회) 동창회 수석부회장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제1회 약학포럼 ‘국내 제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성공전략’이 성공리에 모두 마무리되었다.

참석한 모교 교수님들과 선후배 동문 및 재학생들, 제약회사 관계자 및 알찬 내용으로 이번 포럼의 의미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 발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한 파마리서치 프로젝트 정상수(24회) 회장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와 도전과제

| 김태억 본부장(범부처신약개발단) |

국내 제약업계는 2000년대 개량신약 26품목, 1세대 바이오벤처의 등장과 성장 등을 시작으로 2010년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및 투자확대와 글로벌 라이선싱, 혁신신약의 해외 임상 등을 거쳐 2020년 7대 제약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뤄지고는 있

지만 개별단계별 사업기획, 사업목표, 평가관리 시스템 차 이로 통합연계가 어려웠고 치료접근법과 모달리티의 기술 역량-인프라의 차이가 존재하는 특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소규모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담론이 아닌 진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바이오의약품 정책 동향

| 강석연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바이오의약품은 오는 2022년 3260억달러 수준으로 전체 의약품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이미 전 세계 매출 상위 열 품목 중 여덟 개가 바이오의약품일 정도다. 국내산업만 보면 2013~2017년 연평균 8.7%, 수출 29.8%가량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해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을 통해 세계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

오 연구개발 혁신과 바이오경제창출, 국가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9대 과제를 세우고 세계 시장 선도를 노리고 있다.특히 바이오의약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허가심사를 선진화해 규제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심사체계와 개발·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허분쟁과 허가관계

| 강춘원 심판장(특허청 특허6부) |

강춘원(29회) 심판장은 약사법과 특허법과의 차이에 대한 특허제도와 의약 특허 현황 및 문제점으로 특허대상은 물질, 조성물, 제조방법, 의약용도이며 이에 대한 오리지널사의 개발단계별 특허출원 전략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는 미국의 Hatch-

Waxman Act 입법과정 및 도입된 제도가 있다는 점과 한미 FTA 합의문(제18.9조 제5항)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심판 현황 및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를 소개했다.



바이오의약품의 보험약가제도

| 김 병 수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

바이오의약품 신약 평가절차에서 의약품 약가협상 절차 생략은 투약비교대상(대체약제 가중 평균가)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는 경우이며, 이 경우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개발난이도 등의 신약의 특성을 고려)이며 금액을 수용하면 건보공단 약가협상(60일)을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혁신 신약제도는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에

대한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평가는 동일제제(약제급여목록표상의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품) 등재시 산정하며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53.55%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TNF- α 억제제를 예로 들어 바이오의약품 급여기준을 설명했다.



2018 제약산업 정부지원과제

| 황 순 옥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

마지막 연자로 황순옥 단장을 대신하여 발표한 중앙대 약대 서동철(23회) 교수는 2018 제약산업 정부지원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제약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지원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제약산업 정부지원과제는 △제약산업 지원정책 △K-파마 아카데미 △보건의료협력사절단 △제약산업홍보회 △한국제약산업 글로벌 홍보단 △한-싱가포르 국제 공동 마케팅 지원 △글로벌 제약산업 핵심전문가 컨설팅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제약산업 정보포털 및 △파마코리아 2030운영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제약산업의 경우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수행중이다.

K-파마 아카데미에서는 주요 제약신흥국의 규제당국자를 초청하고 국내 기업 및 제품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해외 인허가 간소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밖에 제약산업 글로벌 홍보단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을 홍보하고 한-싱가포르 국제공동마케팅으로 국내 기업의 아시아 시장진출과 투자유치를 도모한다.

내부적으로는 해외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거치는 여러 컨설팅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판로와 개발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평 드래곤밸리의 아름다운 추억

12회 졸업 50주년 기념 여행

조택상 (12회)
동기회장



손꼽아 기다리던 9월 15일(토) 아침이 밝았다. 청운의 꿈을 안고 교정을 떠난 지 무릇 기하이뇨?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지 5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동기들이 세대의 리무진 관광버스로 강릉을 향해 출발했다.

날씨가 쾌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가는 것 이상으로 들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심장의 울렁거림이랄까? 졸업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재회인가! 전국에서 당연히 모인 친구들은 물론이고 멀리 미국에서 오직 이 모임을 위해 귀국한 친구 4명까지 무려 68명이나 모였다.

지루할 틈도 없이 곧장 동해를 향해 달려간 일행은 경포대에서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해 그 동안의 안부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인사를 주고받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특히 오늘의 이 모임을 위해서 손동헌, 허인회 명예교수 두 분의 은사님이 참석해 주신 것은 물론 전 일정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모임의 의미가 두 배의 즐거움으로 확장되었다.

느긋하게 삼양목장을 관람하며 모처럼의 망중한을 즐긴 일행은 숙소인 용평 드래곤밸리 호텔로 이동했다. 간단히 여장을 풀고는 그랜드볼룸에서 본 행사인 졸업





“
 날씨가 쾌청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가는 것 이상으로
 들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심장의 울렁거림이랄까?
 졸업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재회인가!
 ”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 약대 총동문회
 홍종오 회장님과 모교에서 황완균 학장님이 우정 참석하여
 직접 축하해 주신 것이 고맙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뿌리
 를 확인하는 자리임에 틀림없을 터!

무엇보다 화려한 행사를 지양하면서 적립된 회비에서 모교
 후배들을 위해 동기회 이름으로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
 달할 수 있어 기뻐다. 조출하지만 격식 있는 행사가 마무리되
 고 나서 일행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만찬을 즐겼
 다. 신나는 여흥이 없다면 모임의 즐거움이 반감될 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엔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이 늦게까지 이
 어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기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
 기 네 분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으니 제약부문의 삼진제
 약 이성우 사장, 공직부문의 정영수 동기, 전국 약사보건소장
 1호의 주인공인 이순우 동기, 그리고 입학 50주년행사 동기
 회장을 맡아 수고해준 이효훈 동기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16일 아침,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여흥을 즐기느라 피곤했을
 법도 하건만 노익장의 동기들은 흐트러진 모습 보일 일 없
 이 호텔 조식을 즐겼다. 이후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발
 양산 정상에서 스키 점프대를 보는 등 동계올림픽 개최지

전체를 관광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정오에 황태정식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까,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2년에 한 번
 씩 정기적으로 만나 회포를 풀기로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지난 이틀 동안은 정말이지 오롯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 행복한 시간이었다. 드래곤밸리의 아름다운 꿈!

우리 나이가 칠십대 중반이니 벌써 세상을 등진 친구들이
 있고, 건강이 나빠서 참석치 못한 친구들이 적지 않다는 아
 쉬움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선배님들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전통이 중대 약
 대에만 있는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재회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후배님들이 계속해서 이 아름다
 운 전통이 끊이지 않도록 슬기롭게 계승해 준다면 지나간
 인생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의 새로운 일정표를 준비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친구들이여, 2년 뒤에 만날 때는 더 건강하게 만날 것을 약
 속하세. 이만 안녕!!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이제는 천천히 가자

22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강 희 윤 (22회)



우리들은 오늘을 알고 있었을까? 그때, 그 풋풋한 스무 살 시절의 우리들은 지금 이 반백의 머리칼, 耳順의 눈빛과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40여년! 그 이후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오고가고 다시가고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 그 질긴 생명력으로 바람 불고, 눈비 맞고, 햇빛 내리는 그 속을 걸어오고 걸어왔었다. 그리고 전혀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새삼스럽다고 너스레를 떠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보란 듯이 다가와 있는 것이다. 2018년 11월 3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74학번(22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다.

준비는 1년 전부터 이준상 동기회장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강명희, 강희윤, 고부환, 김기욱, 김종빈, 김홍진, 박상룡, 손의동, 서금자, 유대식, 이규흥, 이명옥, 이은구, 오황영, 이정석, 한만영, 최광훈, 최용포, 천경호 동기들이 임원으로 참여하며 수많은 소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준비를 해왔다.

루이스가든으로 조용히 석양이 내려앉고 우리가 공부하던 파이프홀이 아닌, 동문회가 초석을 다져 최신으로 지어진 약학관 11층 유니버시티클럽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오는 동기들 얼굴에는 반가움과 설렘, 그리움들이 가득했다.

“ 40여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제는 사회의 어른들이 된 동기들은 자부심과 여유, 신중함,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반가이 맞이하며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기도 하였다. ”





40여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제는 사회의 어른들이 된 동기들은 자부심과 여유, 신중함,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반가이 맞이하며 악수를 하고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기도 하였다.

「각자의 길에서 최고가 되고자 애써왔던 40여년의 힘찬, 빠른 발걸음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여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천천히 가자」는 이준상 동기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제1부 기념행사는 강희훈 동기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손동헌, 김기호, 허인회 명예교수님이 참석하셨지만, 그 많은 은사님들이 작고하시거나 너무 연로하셔서 오시지 못하니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앞섰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고부환 동기가 토요일의 엄청난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한덕용 은사님을 직접 모시고 옴으로써 그나마 아쉬움을 덜 수 있었다. 손의동 교수가 직접 자료를 모으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애니메이션 PPT로 소개한 지난 40여년의 추억의 영상물들은 우리를 학창시절로 데리고 가 모두를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다. 곧 이어 40여년의 족적과 학교의 변화와 동문회를 통한

22회 동기회의 학교사랑 등을 손의동 교수가 서사시로 쓴 것을 이명옥 동기가 낭송을 하자 모두들 숙연해지며 서로의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맞잡기도 하였다.

또한 동기들 참석을 독려하며 임원활동을 한 김흥진 교수에게도 큰 박수가 쏟아졌다.

그 다음은 22회 동기들의 뜻을 모은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 이규흥 총무가 경과보고를 통해 40주년 동기회 기념식 준비 및 동기 활동을 요약했다.

홍종오 동문회장을 대신한 김수배 부회장, 황완균 학장, 손동헌 은사님의 격려사가 있었고 전임회장 최광훈, 유대식 동기에게, 그리고 약사이면서 드물게 道와 德의 진리를 찾아 긴 여정을 펼치며 서예, 전각 등의 예술 활동을 심도 있게 해온 허규 동기에게 각각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선집을 낼 정도로 한시에 박학다식하며 서예에도 경지에 이른 허인회 은사님의 40주년 기념 휘호 표구와 허규 동기의 전각과 인보 등 귀중한 기념품들이 이준상 동기회장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은사님들을 모시고 스승의 은혜와 교가



“
40여년! 그 이후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오고가고
다시가고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린 그 질긴 생명력으로 바람 불고, 눈비 맞고,
햇빛 내리는 그 속을 걸어오고 걸어왔다.”

내던 기타 잘 치던 이주원 동기의 노래로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갔다.
특히 우리 다음 기수인 23회가 미리 자신들의 졸업 40주년 행사를 위해 여행연습차 참석한 김수중 23회 동기회장과 박희용 교수 등은 22회 동기회 행사가 너무 잘되고 멋진 것 같다고 입을 모으며 23회 행사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을 해서 몇몇 동기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를 제창하고는 60명의 동기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제1부 행사가 모두 끝났다.
이어진 즐거운 만찬시간을 통해 와인잔을 끊임없이 부딪치며 얼굴에는 함박미소를 머금고 삼삼오오 어깨를 교차해가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고 서로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며 하하호호 즐거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제3부는 박상용 동기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멀리 제주도에 서부터 무거운 색소폰을 비행기로 모시고 온 제주의 유지오형 동기가 'You raise me up'으로 포문을 열고, 양구 산골동네에서도 멋과 약사의 품위를 지켜오는 민장식 동기가 'Cherry pink mambo'로 흥을 돋우었으며, 김종빈 동기가 부인인 김명숙 씨와 함께 우리들의 학창시절 때의 애창곡 '편지'와 '누이', '아모르 파티'를 멋지게 연주하여 부러움과 감탄을 자아내었다.

이어 오항영 동기와 민장식 동기가 '친구여'를 합주하는 것으로 동기들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 냈다.

학창시절 '칼라무스'로 활동하면서 부드럽고 고운 목소리로 명곡을 부르던 박성준 동기와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뽐

돌아가는 길 고맙게 찬조해준 주식회사 그래미의 여명과 함께 정진호, 강명희 동기의 발품을 판 등산용 배낭, 허규 동기의 '지구별 아바타 사용설명서 새기기' 책 등을 받으면서 입학 50주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헤어짐이 못내 아쉬운 20여명은 학교 앞 호프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학창시절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정담을 나누었다.

그렇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2회 동기회(74학번) 졸업 40주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성공리에 이 기념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간 불철주야 오직 이 행사만을 위해 책임감과 노력으로 철저한 계획, 주소 찾기, 전화 걸기, 참석 독려 등 모든 과정에 힘쓴 이준상 동기회장의 대단한 수고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무엇보다 손의동 교수를 비롯한 임원들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먼 곳에서도 모두 달려와 준 참석한 모든 동기들의 힘이었으리라!

다음 입학 50주년 행사 때 다시 반가운 얼굴 그리운 모습들로 만난 것을 기약하며 이 글을 마친다.



공부도 운동도 우정도 늘 열심이었던 우리 동기들!

84학번 졸업 30주년 기념식

이 경 우 (32회)
동기회장



어제는 서설이 온 세상을 하얗게 수놓으면서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대중양대 약대 84학번 동기들!

기와지붕의 교문, 넓은 황금빛 루이스가든과 흰색의 파이퍼홀, 청룡연못과 비단잉어, 도서관 시계탑, 한강을 넘어 멀리 남산타워를 바라보던 할머니동산 등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캠퍼스 이곳저곳이 먼저 뇌리를 스쳐갑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한참이던 그 시절 무시로 최루가스와 씨름하면서 타 학과보다 많은 학점과 더 많은 실험으로 여러 실험실과 강의실인 영신관에서 열정을 불살랐고, 그에 더해 할머니 동상 앞 혹은 루이스가든에서 젊음과 시국을 논했던 시간의 열정과 그리움으로 지낸 우리 동기들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배경으로 오늘 은사님들과 내빈들을 모시고 발전된 모교에서 우리 84학번 동기들의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 세월의 누적 속에 그야말로 사회 초
짜였던 우리 병아리 약사들은 그간 개국약사의 소명감을 가
슴에 품고 각 지역 약사회의 중견약사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몇몇 동기들은 약사회 회무를 이
끌고 있거나 식약처, 지역보건소 등에서 행정의 기둥으로써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후학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동기들에
더해 병원에서 책임약사로서, 제약회사를 포함한 약업계에
서 두각을 나타내어 회사정책의 책임자로서, 연구개발의 수
장으로서 세계를 상대로 우리 중앙대 약대, 더 나아가 대한
민국의 약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동기, 만학의 열정으로 캐나
다 약사면허를 취득한 동기도 있는가 하면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동기도 있습
니다.

그야말로 같은 뿌리에서 나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
한 결과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의 곳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약업계 상황은 복잡한 사회환경과 맞물
려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렇습니다. 학창 시절 타 학번 선배들보다 더 노력하지 않
으면 안 되었던 우리 동기들이었기에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더 많은 노력과 의지로써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우정도 늘 열심이었던 우리 동기들! 국적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적은 영원
히 바꿀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든 시절이 가든 우리는 중앙
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같은 학적을 갖는 동기들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졸업한 모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약학대학 84학번 사랑스러운 동기들, 그리고
은사님들 모두의 건강과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만
남을 자축하고자 합니다. 대중대 약대 84학번 화이팅!



졸업50주년기념 1박2일(2017.10.21-22) 여행을 마치며

63년 입학동기회



고 승 하

(63동기회 1박2일여행 추진위원장)



김 창 중

(63동기회 자문위원장)

졸업50주년 기념행사 준비모임

2015년 봄에 고승하와 김창중 동기가 미국 LA를 방문하여 동기 4명(김문엽 신부 남 윤희배 이광웅)을 만나 졸업50주년기념 1박2일 여행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부탁하며 여기에 대한 동기들의 의견을 녹화해 왔다. 2015년 말까지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자 2016년 5월에 김창중 동기가 채팅방 방장이 되어 75명을 초빙하여 '63옥(집)'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동기들 간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때 지난 졸업40주년 기념행사 사진들과 각 서클모임에서 추억이 될 만한 사진들이나 비디오 필름을 채팅방에 올려주면 이들을 모아 50주년 기념식 때 보여드릴 슬라이드 또는 사진첩을 제작해 보겠다고 안내하였다. 특히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약대 체육대회날 흑석동 안동장에서 「졸업50주년 기념행사 준비모임」을 소집하였다. 그때 방장이 제안한 졸업50주년행사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11회 동기회는 약대동문회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킬 의무를 지니며, 졸업50주년행사를 2017년 10월 21일(토)에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졸업50주년 기념행사 주관 회장은 황공용, 부회장은 각 서클당 1명씩 8명, 전임회장 8명을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장은 김창중이 맞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회장으로 선출된 황공용 동기는 서클회장모임에서 기념행사만 본인이 치르겠다고, 제안된 시티투어나 1박2일 여행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라며 회원마다 행사비와 장학금으로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거출하여 50주년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모금하기 시작하였다.

“

63년 입학동기생은 약 80명이

연락되고 있는데 73명이

50주년 기념행사 회비를 납부해 주었고,

37명이 1박2일 여행비를 납부해 줌으로서

50주년기념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



1박한 22명 동기, 여행경비납부자 15명 불참(Freshia Hotel)

졸업50주년기념 1박2일여행 추진

1박2일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약 2시간 진행될 기념행사만 추진할 때 중대약대 다른 기수의 모임 예를 볼 때 국내외 극소수 동기생이 참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많은 동기들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졸업50주년 기념 1박2일 여행을 원하는 서클회장을 김창종 자문위원장이 따로 소집해 3회에 걸쳐 종로5가 입실한우정 등에서 석송회(8명), 중호회(7명), 청사회(5명), 메론회(3명), 김형균 이광웅 이석태 하만웅 한창희 등이 토의하여 1박2일 기념여행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채팅방을 통해 회비 10만원 및 찬조금을 거출한다고 공고하고 안내됨으로서 37명이 납부해 주었다.

1박2일여행추진 고승하 위원장은 강화도를 관광지로 선정하여 차질 없는 계획을 세웠다. 졸업50주년 기념여행은 37명 동기들의 회비납부와 찬조로 진행할 수 있었다. 김창종 625만원(관광버스대절, 졸업50주년 기념행사 준비모임 경비 및 병태생리학 책 50권), 고승하 및 이석태 각 100만원, 윤형배 800불, 김순호 80만원, 하만웅 30만원, 김형균

20만원, 30명 각 10만원[이명자 박월준 조명숙(제주) 조명숙(전주) 최민재 채신자 홍금자 강봉천 강일성 남기택 박신규 함종한 이범웅 김재곤 박승보 손영수 차영진 정덕호 구자역 김문엽 김형균 이광제 이교문 이해일 유병태 임태순 정해운 하만웅 한창희 황한성]. 합계 약 1340만원이 모금되어 63년 입학동기회 보유기금 830만원에서 일체의 지원도 받지 않고 1박2일 여행이 진행되었다.

기념행사 후 관광버스로 강화도행

63동기회 황공용 회장은 2017년 10월 21일 18~20시에 university club에서 회비를 납부한 73명 동기 중 49명과 은사님, 동문회장단, 학장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5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기념행사가 끝난 20시경 1박2일 여행회비 납부자 37명 중 23명이 관광버스에 올라 50년 전 추억의 바람을 일으키며 역사의 고장, 강화도를 향해 달리며 여행이 시작되었다.

자기 이름표를 달고 50년 전을 기억하며 변화된 서로의 모



강화도 통일전망대 앞에서



강화도 고려궁지 앞에서



김순호 동기 모교장학금 1,000만원 기증

습을 보며 50년 전의 추억을 들추었다. 모든 동기들에게 마이크를 돌려가며 추억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부부가 참석한 미국 LA의 윤희배 동기는 부인 오영란(중대약대 4년후배)과 함께 2개의 약국을 각각 경영하다가 약 10년 전에 retire 했다는 등 41년간 미국생활을 소개하였다. 또 LA의 김문엽은 40년간의 미국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터득했다면서 우리는 약사가 되어 모두 성공한 동기들이니 “서로 자기인생에 박수를 치며 살아가자”는 철학자 같은 명언을 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캐나다의 박월준 동기는 벤구버에서 골프장을 경영하다가 서울 부산 캐나다를 순회하면서 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제주도에서 온 김재곤 및 조명숙 동기, 부산의 채신자 하만웅 홍금자 동기, 또한 전주의 조명숙, 흥성의 한창희가 소개되었다. 그외 동기는 거의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고승하 구자익 김창종 김형균 박승보 유병태 이교문 이명옥 이범웅 이철규 정해운 함종한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63학번 중앙대학교 전체수석입학자, 김형균 동기는 30년간의 공무

원생활을 접고 재입학하여 약사가 되어 나사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되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국 Philadelphia의 김순호 동기는 2016년에 1000만원 장학금을 모교에 기증하였으며, 1개월 전 서울FIP(세계약학연맹)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고 소개되었다. 1박2일여행에 참여하겠다고 찬조금까지 내주신 원주의 이석태는 개인사정으로 여행에 동참하지 못했고, 그외 여행에 동참하지 못한 12명 동기들은 다양한 개인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그간 동기들의 자기소개와 더불어 50년간의 추억담을 듣다보니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 우리나라 전국을 돌면서 여행을 마치는 기분으로 숙소에 도착되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23시까지 로비에 모여 노래방으로 안내되었다.

노래자랑과 야식파티

우리 동기 23명 전부가 들어가는 대형 노래방을 가진 강남 노래방에서 63년 봄 천마산 야유회를 연상케 해주는 노래자랑이 열렸다. 50년 전 학창시절에는 수줍어했던 여학생



LA 거주 동기생들과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모임(LA, 2015년4월)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강화도 강남 노래방에서



강화도 전등사 경내에서



강화도 카톨릭성지에서



강화도 선두리 포구식당

들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기선을 잡기 시작하였다. 박월준은 섬마을선생님, 이명옥은 님그림자, 이명자는 서울이여안녕과 내나이 묻지마세요, 이철규는 정, 함종한은 잊혀진 계절, 채신자는 소양강처녀, 조명숙(제주)은 동반자, 홍금자는 애모를 불렀다. 윤형배 부부는 추풍령고개를 부르다가 댄스곡을 선택하더니 부부가 ballroom dance를 추기 시작하니 김창종 채신자 함종한 홍금자 등이 나와 어울리며 dance party를 열었다. 김형균은 삼다도소식, 김창종은 허공을 부르는 등, 모두 한곡이상 부르다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다.

가수 수준급인 김문엽은 노랑샤스 입은 사나이, 하만웅은 오데니 보이를 부르고 노래방을 빠져나와 이범웅, 한창희 등과 함께 예약된 경남식당에서 강화 인삼동동주를 마시며 학창시절 연못시장의 추억들에 젖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구

자역과 이교문 동기가 한방약물치료에 관한 토의를 벌리고 있었다. 우리 23명 모두가 한자리에 합석하여 해장국과 파전, 감자전, 도토리묵 등을 곁들인 야식파티가 열렸는데 마치 연못시장 대포집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서로 논의했던 충성옥을 연상케 해 주었다. 노래자랑과 야식파티를 마치고 호텔에 도착해보니 새벽 3시가 되어 호텔방 9개에 분산해 그룹별로 취침하였다.

70대 중반인 63동기생들은 대학입학 신입생들처럼 노래를 불러대고 남녀가 허물없는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관경들을 보니 자기인생에 박수를 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강화도 명승지 관광

호텔에서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7시반 모닝콜로 모두 일어나 호텔에서 제공한 꽃계탕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기념사

진을 찍었다. 이때 조명숙(전주)과 채신자(부산) 동기가 집 안에 급한 일이 발생하였다면서 떠남으로서 아쉬움을 남겼다. 단풍의 계절 10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맑은 가을 날 8시경!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전등사」에 도착해 경내를 거닐며 삼삼오오 모여 다니며 50년간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산책하였다.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인 381년에 이도화상이 창건하여 한용문과 만공의 상좌인 춘성이 주지로 근무하였으며, 현존 한국 사찰 중 가장 역사가 깊다고 소개되어 모두들 놀라워했다.

그다음으로 버스가 통일전망대로 향하고 있을 때 제주도 김재근 동기에게 집안의 급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급전이 왔기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시켜 주게 되었으니 또 아쉬움을 남겼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에 도달하여 만원경으로 약 1 km 강건너 북한초소와 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시하며 적막한 분단의 슬픔을 맛보면서 통일을 염원하였다. 동기들은 통일전망대와 전승비, 탱크 등을 돌아보며 사진으로 추억들을 담았다.

다시 버스를 타고 우리는 천주교 신앙유입의 해로(海路)였던 한옥으로 지어진 강화도의 「천주교 성지」를 관찰하였다. 또 조선25대왕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주하였다는 「용흥궁」을 구경하였다. 또한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줄기차게 항전하던 39년간의 궁궐이 있었던 「고려궁지」를 차례로 관광하였다. 우리는 약 3 km 정도의 거리를 도보로 순회하며 관광하였는데 의자에 앉아 자주 쉬고 있는 동기들을 볼 때 늙기도 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선두리포구 중식 및 광성보 관광

강화 포구식당에서 신선하고 팔팔튀는 왕세우와 전어 구이, 우력매운탕에 소주를 곁들인 점심식사는 일품이었다. 여기에서 동기들의 주량을 보니 옛날 학창시절에 마셨던 주량이 변치 않고 유지되어 온 건강한 동기들만 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시간동안 학창시절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추억의 꽃이 피어 향기가 가득해 졌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미양요(조선과 미국 간 전쟁) 격전지인 「광성보」를 관광해야 했기에 일어나야 했다. 광성보에 도착하였으나 교통 혼잡으로 만찬 장소에 19시까지도 도착할 수 없

다는 운전기사의 조언에 따라 입구에서 대충보고 상경하게 되어 아쉬웠다.

상경 관광버스속의 토론회

17시경 상경버스에 몸을 실은 동기들은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박월준 동기가 여자동기들이 처음에는 1박2일여행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남자동기들이 부부동반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미안하게 되었다고 발언하자, 유일하게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윤형배는 부부동반하지 않는 한국의 모임문화가 개선되어야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63동기회 몇 개 서클들이 수십년간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해오고 있듯이 소수 서클모임이나 부부동반이 가능하지만, 정원 120명이고 남녀공학인 중대약대 동기회는 부부동반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자문위원장의 보고를 들으며, 결론을 낼 수 없어 희망사항으로 남기고 말았다.

동기들은 졸업50주년기념 행사에서 1박2일여행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아쉬워했다. 특히 차기 동기회장은 매년 이런 1박2일여행을 개최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하는 동기들이 많았다. 미국 LA에서 온 두 동기생은 미국을 관광오시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반드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포스코빌딩내 제우스타 만찬

관광버스가 19시 반경 강남역 포스코빌딩 내 「제우스타」에 도착하여 저녁만찬이 시작되었다. 2시간의 졸업50주년 기념식만 참석하고 헤어졌던 동기생들 중 김철홍 동기가 만찬에 참석하였다. 김창종 동기가 은사님들과 작년 5월부터 체팅방 63옥에 올라온 사진들 약 200장을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설명해 가면서 '63동기회 슬라이드쇼'를 20분간 보여주어 찬사를 받았다. 여기에는 재학시절 은사이며 고인이 되신 최규한 양형호 고윤식 최석상 김일혁 교수님의 사진도 있었으며, 기념식에 참석하신 한덕용 손동헌 이광표 김기호 허인회 교수님도 나왔다. 또한 40주년기념행사 사진들과 54년 전 재학시절 도서관과 파이퍼홀 앞 잔디밭에



김순호 동기 환송회



윤형배 동기 환송회



김문엽 동기 환송회

서 씨름하고 놀던 사진들도 보여주어 추억에 젖었다. 최근 故최옥출 동기 문상사진들과 고인이 된 많은 동기들의 사진이 나올 때 마다 숙연해 졌다. 또 고승하 동기가 전국을 순회하며 만났던 동기생들의 근황을 보여주는 사진들까지 보게 되었다.

여행준비위원회는 여흥시간을 준비하였으나 멀리 국내외에서 모인 동기생들의 피로가 쌓인 탓인지 식사 후 21시가 되자 귀가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바람에 1박2일여행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박2일여행을 마치며

졸업50주년 1년 반을 앞두고 김창중 동기가 63년 입학동기 채팅방(63옥)을 만들어 동기간 대화의 광장을 열어주고 「졸업50주년 기념행사 준비모임」을 소집해 63동기회 황공용 회장을 선출하고, 또 1박2일 여행을 원하는 동기들과 3회 모임을 가져 1박2일 여행추진위원장 고승하 동기를 선출해 주고, 관광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졸업 50주년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었다.

그러므로 졸업40주년행사 때 참여자(24명) 보다 50주년행사에 3배가 더 많이 참여해주었고(73명) 그 절반이 1박2일 여행에 동참하였다(37명). 63년 입학동기회는 그동안 몇 개의 서클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치르다 보니 기념행사 외에는 전체가 만날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서클을 초월하여 졸업

50주년에 금혼식 하듯이 합금회(合金會)를 구성하여 뭉쳐 보자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1박2일 여행을 추진하였고, 결산 보고에서 333만원의 잔금이 남았으니 63동기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5·16 군사정변으로 3권을 장악한 군사정부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1963년 신입생 모집에서 교육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국대학 학과의 학생모집이 정지되었다. 특히 C 및 D 대학 약학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입학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 농업고 및 기술계공고 출신을 이공계학과에 일정수 합격을 권고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커트라인을 4년제 대학 정원만 합격발표(1차)하여 입시를 치르자 서울대까지도 많은 학과가 정원 미달되자 커트라인을 2, 3차까지 하향 발표하여 대학입학시험을 종료하더니 다음해부터 폐지되었다. 1차 대학입학자격고사 합격후 1개교 선택지망 입시제도하에 중대 약대만 3:1이고 전과가 미달인 상태에서 입학시험을 치러 입학한 63년 입학동기생들은 연락되는 동기 80명 중 90% 이상인 73명이 졸업50주년행사에 참여해 주었으니 서로에게 박수치며 살아갈 수 있는 63동기생이 되었다.

끝으로 중앙대학교 약대 동문회는 졸업50주년 때 전통적으로 1박2일 여행을 유지하여 회원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11회도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 왔다고 보고 드리는 글로 남기며, 다음 후배들도 1박2일 여행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진 | 별처럼

道法自然

전각과 서예의 길을 통해 진정한 약사로 태어남



‘까공~ 까공’

언젠가부터 동기들 카톡방에 초대되어 심심치 않게(어쩌면 귀찮게~) 동기들의 소식이 전해지며 졸업 40주년을 맞이하는 임원들의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는 물론이고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이방인으로 거의 방관하시피 할 뿐이었는데.

어느 날 여자 동기 한분이 한국화가로 데뷔를 해서 개인전을 한다고 번개통신이 뜨자 축하 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화가라니! 사실 반갑기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화가라는 직함을 여자동기가 실현해 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화가! 그러니까 중앙대 예대를 가려고 입학원서를 샀던 기억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운명의 장난으로 나는 약사가 되어 먼 길을 돌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화가들이 좋아하는 전각 하나 새겨 줘야겠다 싶어 인장 1과를 새겨서 카톡방에 올렸습니다.^(사진 | 별처럼)

전각은 30여년 전 고향에 내려와 약국을 차린 후 서예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온양에서 사시던 전각가 ‘석봉 고봉주’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과분하게도 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양학의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십년공부가 하루아침에 성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갈급했던 화가에 대한 꿈이 서예와 전각이라는 나무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각이라는 장르가 흔히 아무나 접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만 새겨도 일반인들은 잘 새겼다는 등 칭찬을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맙게도 그 여자 동기분은 시골에 있는 우리 약국에 까지 찾아와 사의를 표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말 한번 섞지 못했는데 서화라는 매개체로 둘은 금방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워낙 딴 길로 많이 썼고 약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젊은 청춘을 얼룩지게 만들었던 시절이니까 지금도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올 뿐입니다.

처음 약국을 차려놓고도 약국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했고, 의약분업이 될 때쯤에는 난매 약국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약국을 접고 그 동안 참고 살았던 꿈을 향해서 다른 길을

허 규 (22회)





사진2 師友 -스승과 친구는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입니다



사진3 전달식



사진4 장산 허인회인



사진5 道法自然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다시 꿈틀 거려 도를 닦는다고 10여년을 명상수련에 전념한 것이지요.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시절에 저는 선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약사라는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60이 다 되어서 하산을 했어도 고향에서 다시 약국을 차릴 수 있었고, 약대 동기들과도 하나 둘씩 다시 인연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대학시절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였음을 깨우칩니다^(사진2 師友 -스승과 친구는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입니다).

동기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기회장에게 전해야겠다고 휘호를 했고 40주년 기념식 날 전해 주었습니다^(사진3 전달식).

그리고 보니 대학시절이 좀 더 가까이 스펙트럼처럼 비춰지며 수고를 끼쳤던 교수님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 와중에 문득 허인회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놈의 영어 때문에 매일 피해 다녀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수님은 종친인데다가 서예로도 노익장을 발휘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1과를 새겨서 전하기로 합니다^(사진4 장산 허인회인).

또한 동기들에게도 그동안 농팽이로만 여겼을 저를 다시 봐달라고 환갑 때 출판을 했던 '도덕경 인보'를 선물로 준비했지요.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소중한 사연을 가지고 40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주년 행사가 끝난 후 감사하게도 허인회 교수님은 제가 새겨준 인장으로 낙관을 해서 휘호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사진5 道法自然). 그렇지요. 도(道)라는 것이 별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도입지요.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허약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치고 싶었던 약사라는 직함이 비로소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약사였기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젊은 시절 꿈을 펼쳐 볼 수도 있었고, 이제는 약사라는 직업을 통해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따뜻한 인간의 면모를 보이는 약사가 되어 10년 후 50주년 행사 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돌에 새겨야겠습니다.



故 윤규영 동문 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지난 1월 10일(목) 오후 3시 약학대학 학장실에서 지난해 작고한 모교 졸업생 **故 윤규영 동문 장학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유한양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천직인 약국을 개업하여 약사로서의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던 윤규영(32회) 동문은 지난 2018년 지병으로 타계했고, 평소의 유지를 받들어 가족들을 통해 모교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이다.

부인 황정선씨는 윤약사가 평소에도 학창시절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었고 기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갚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특히 투병 중이던 시기에 가족들에게 각별히 이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의미 있는 행사에 동행한 딸 윤지희씨는 지난해 9월 1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린 지 이틀 후인 9월 3일 눈을 감으셨다며 각별했던 부녀지간의 정을 표출했으며, 아버지가 바라시던 일이니만큼 가족들도 흔쾌히 이 행사에 나서게 되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가족들은 이와 별도로 윤약사의 정신적 모태라고 할 수 있는 84학번 동기회에도 별도로 소정의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혀 깊은 울림을 주었다.

행사에는 고인의 약학대학 동기인 CTC바이오 전홍렬 부사장과 JW홀딩스 이상준 수석상무가 가족들을 안내하여 참석했고, 모교 황완균 학장과 황광우 학부장, 오경택 학과장 등 보직교수와 평소 고인과 친분이 있던 약제반 후배 이재휘 교수가 자리를 같이 하여 학교측을 대표하여 감사를 표했다. 학교측은 향후 이 기금이 후배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약속을 했으며,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며 거듭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2019학년도 약학대학 실무실습 O.T 및 White Coat Ceremony

지난 2017년 첫 행사에 이어 2018년 12월 21일 저녁, 약학대학 3층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현장 실무실습을 앞둔 5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약학대학 실무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무실습교육 선서식(White Coat Ceremony)이 두 번째로 거행이 되었다.

의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나 간호대의 나이팅게일 선서식과 같은 취지로 마련된 본 행사는 졸업 후 전문직능인인 약사로서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에서 재학 중 배운 것들을 현실 속에 적응시키며 내실을 다지는 실무실습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고 예비약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황광우 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보직교수들과 함께 직접 참석한 교수들의 소개에 이어 황완균 모교학장의 식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출발선에 선 학생들의 자세를 가다듬는 진솔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황학장은 학생들에게 “지금이 향후 1년간 실습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순간으로, 형식적인 절차라 생각하여 설렁설렁 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진로에 대해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험한 멘토링이며 각급 실습 및 실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번 과정에 임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은 열정이고, 단 이 열정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학교문을 나서면 개인이 아니라 곧 중앙대 약대의 대

표자로 인식됨을 자각하여 무엇보다 학생의 본분을 잊지 말고 실습환경의 열악함이나 그 이상의 문제도 오픈마인드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1년을 보낸다면 내년 이맘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며, 매 순간 중앙대 약대생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실습에 임하자”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대표로 박영호 학생회장과 김양균, 김태진 과대표 등 총 3명의 학생에게 황완균 모교학장과 함께 이번 행사를 위해 후배들을 위해 우정 시간을 내어 프리셉터 대표로 참석한 보라매병원 약제부 김정수(26회) 부장 및 중앙대병원 약제부 임형미(32회) 부장이 직접 실습가운을 입혀 주고 실무실습교육생의 명찰을 부착해 주는 동시에 참석한 전 학생들이 가운을 입는 의식인 화이트코트 착의식이 중심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대표가 참석자 전원과 동심일체를 이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를 시작으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모든 조항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선언하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문을 낭독함으로써 예비약사로서의 첫출발을 다짐하는 엄숙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착의식과 선서문 낭독을 끝낸 후 참석한 교수진 및 학생들 전원이 단상 앞으로 모여 약사의 정체



성을 잃지 말자는 다짐과 함께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어진 실무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각 사이트 담당교수 주관으로 의료기관 10주, 지역약국 5주, 제약회사 2주로 이어지는 필수실무실습 사이트별 17주간의 실습기간 소개에 이어 평가방법과 실습 전후의 의무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진행되었다.

평가는 실습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습 사이트의 직접 평가를 중심으로 실습 중 작성한 실습일지와 사이트에 제출한 과제물 및 과정 종료 후 실시되는 종합시험을 망라하여 진행됨을 밝혀 어느 한 순간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재사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문

선 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내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하나,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고통 받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 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어떠한 생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약학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항상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약학과 관련한 모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도덕적 가치 규범을 따르겠습니다.

하나, 나는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모든 조항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대표 박 영 호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 납부, 작은 정성이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납부기간 : 2018. 6. 1~2019. 1. 31

회장단회비		600,000원
21회	홍종오, 김수배, 김중호, 김진자, 노재하, 백운경 양주석, 최병철, 한성희	26회 박정래, 반수호, 최민규, 한갑현
22회	강희윤, 유대식, 최광훈	27회 곽나윤, 김정호, 박영달
23회	김수중, 박종화	28회 구영삼, 김희식, 양덕숙, 이해룡, 장원규
24회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29회 이상수
25회	문태화, 이광인, 이현수, 최두주	30회 김광식, 윤미숙, 이장무
		35회 임중식

이사회비		150,000원
1회	손동헌	20회 김흥진, 류화승, 배성진, 이극선, 이상일, 이영희 이호선, 임경원, 정찬현
2회	황재수	21회 고영근, 안병현, 이상준, 한찬수
3회	강승조, 손석우, 이병균	22회 오황영, 이현희, 한만영
4회	이창우	23회 박상진, 박희용
6회	박정배, 신정숙, 안병한, 유상열	24회 임무호
7회	김정부, 서명규, 이기안, 정재일	25회 김희섭, 이완희
8회	박번일, 임상묵, 조의환, 한석원	27회 박수길, 오순용, 윤영한, 한봉길, 현기원
9회	권혁구, 김영빈, 이규진, 이규진, 이근배	28회 신영무, 이영주
10회	박호일, 방순환, 이홍수	29회 김은진, 김인혜, 한일룡
11회	김미자, 김창중, 황공용	30회 김해승, 김혜수
12회	남기탁, 노덕재, 심재웅, 염윤기, 이관하, 이성우 조택상	31회 오대근, 오세정
13회	구연홍, 문재빈, 서국진, 안병식, 윤해선, 이종각	32회 정영복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명웅, 김윤국	34회 김보원
15회	조찬휘	35회 강의석, 양윤정
17회	김성지, 장재인	38회 이재훈, 최은영
18회	김기명, 정명진, 조중형	42회 정동만
19회	김경오	

일반회비		30,000원
11회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서세양, 송상부, 장현소 허정범	30회 고은숙, 이호일, 전기남, 조순연, 홍염미, 최현희
12회	강창희, 김대건, 문혜성, 박흥식, 이만오, 이순우 이정희, 이종화, 최덕구, 최창묵	31회 구상미, 송소연, 유인숙, 유지영, 이영민, 윤희정 이정희
13회	김석규, 우동진, 조성도, 최승기, 최창건	32회 김지현, 신은숙, 안승희, 이명선, 정현삼, 채영주
14회	김명수, 김영일, 김진행, 류효성, 상경숙, 이강련 이용성, 전영표, 정도연, 조병화, 현혜경, 홍성철	33회 김영재, 소정우, 임희원, 최현정
15회	김관호, 김형수, 이덕노, 이인석	34회 민성철, 박상권, 성선경, 이영은
16회	김광길, 박상환, 박종애, 신규언, 신진숙, 윤영위 조연심	35회 김성훈
17회	김완희, 조기남	36회 박화신, 방극상, 유복진
18회	여운숙, 육득윤, 임태영	37회 김찬배, 박재형
19회	김행소, 남윤수, 박운홍, 배영덕	38회 박종일, 성치순, 윤광식, 이명희
20회	김영식, 김종갑, 남덕자, 방금숙, 서기수, 송열호 윤춘수, 이차웅	39회 박성훈, 방근철, 한은경
21회	강성무, 김용주, 류승률, 신길득, 장창만, 조복	40회 장정수, 황선영
22회	김인선, 장상대, 정태화, 천경호	41회 박영진, 신유미, 장산옥, 최현진
23회	나용태	42회 민명기, 이창경
24회	김기환, 김정무, 오동근, 원경선, 정상수	43회 남주영
25회	김두수, 김선열, 손현우, 이동규, 임흥기	44회 고정봉, 정의찬
26회	김기형, 김봉일, 박주돈, 양승훈, 이순아, 김정수B	45회 고기현, 박성희, 신미순
27회	김창식, 이정아, 전명수	47회 이승민
28회	조효금, 한성호	49회 이선헌
29회	권혁자, 민희정, 심미선, 안형준, 이강현, 장병곤 장우성, 한규인	51회 송호선
		52회 신은경
		60회 변성민
		61회 박진술, 엄성준, 이기철
		62회 우건희



문화
구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2018-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약학부	박종현
2	본동문회	900,000	약학부	송우길
3	본동문회	2,000,000	약학부	윤진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장서진
5	본동문회	900,000	약학	김재천
6	본동문회	800,000	제약학	강지선
7	본동문회	800,000	제약학	송우석
8	본동문회	800,000	제약학	박유빈
9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김진영
10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강솔
11	본동문회	1,500,000	제약학	배다영
12	본동문회	800,000	제약학	오민아
1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영담
1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박준용
15	본동문회	800,000	약학	김예희
16	본동문회	800,000	제약학	김병덕
17	본동문회	900,000	제약학	홍효빈
18	본동문회(청호)	1,000,000	약학	김혜란
19	본동문회(김명섭)	1,000,000	약학	김재창
20	여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민아
21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휘수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22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부종필
23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이기범
24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김찬양
25	26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강민수
26	26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김정호
27	약품물리반	1,000,000	약학	이주찬
28	약품물리반	1,000,000	약학	채희수
29	병태생리학교실 장학회	1,000,000	약학	김양균
30	병태생리학교실 장학회	1,000,000	약학	임성원
31	생체방어조절연구실	1,000,000	약학	강영우
32	칼라무스	1,000,000	제약학	이지훈
33	칼라무스	1,000,000	약학	손혜림
34	칼라무스	1,000,000	제약학	김준하
35	칼라무스	1,000,000	약학	김선우
36	칼라무스	500,000	제약학	김근휘
37	칼라무스	500,000	약학	최진희
38	강서동문회	1,000,000	약학	이상우
39	28회동기회	1,000,000	약학부	강유나
40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김민정
41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이유나
합 계		41,500,000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순애보〉

31년을 기다려 결혼한 금지된 사랑이었다.
1971년 흥남비료공장에 유학간 베트남 간부아들 칸이
북한 현지 실험실에 일하는 이영희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당국의 금지 때문에 사랑을 이룰수 없었다.
이후 끊임없는 우여 곡절 겪은 후 그들의 결혼 신청이 이루어 진다.
2002년 평양 주재 베트남 대사관에서 신랑은 52세 신부는 53세
중년을 넘은 나이에 하노이에 신집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에서는 트럼프金正은 못지않게
화제라 한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방학이니 어디 좀 가자는 집사람 지청구 버티다 못해
하필이면 한파 급습한 12월 29일 순천만 거쳐 여수로 이어지는
1박 2일 맛 기행을 떠났다. 시간 여유롭지 못해 KTX 타고 가며
용산역에서 산 도시락 까먹고 갈대도 풍경도 얼어붙은 순천만 둘러보러
들어가는 순간 집사람이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접질렸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수 가서 한밤 자고 추위에 바람 불어 케이블카도
못타보고 동백섬 코끼리열차 비닐창 찬바람 맞고 다시 KTX 타고
엑스포역에서 산 도시락 까먹으며 용산역에 내렸다.
이리하야 미식기행은 기차에서 오며가며 도시락 까먹은 이야기가 되었더라.
세상 참, 살아가기 힘들다!

김광식(30회)
편집위원

21대 약학대학 총동문회 집행부에 막내로 승선하여
앞만 보고 뛰어 오다 보니
어느새 종착역에 다다를 시점이 되었네요.
열심히 했고, 선후배님들로부터 그 이상의 사랑을 받으며
힘든 줄 모르고 달려 왔습니다.
보다 큰 열정으로 우리 동문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반가운 뉴스!

타르색소, 보존제 무첨가!
틀니건강까지 생각하는
클리덴트 출시!



양치한듯 상쾌하게
클리덴트

- 타르색소 없이 투명하게
- 상쾌한 향으로 기분 좋게
- 99.9% 살균으로 건강하게!
- ☑️ 취침 전 담가두시고 아침에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의사항은 080-282-2828 약국에서 클리덴트를 찾아주세요!

“
베나치오 효과를
보신 분들은
베나치오만 찾습니다
”



소화 안될때 빠르고 시원하게 베나치오



위운동으로
빠른 소화효과!

위운동을 촉진시키는 베나치오의 생약성분
위운동이 잘 돼야 소화가 잘 됩니다

인터넷에서 **베나치오** 를 검색하세요

빠르고 시원하게
베나치오



일동생활건강 알칼리 이온수기

우리 가족 건강이 달라집니다

한잔의 물이라도 이전 알칼리이온수로 선택하세요!

작은 클러스트

수돗물에 비해 물 입자가 작아 흡수,배출이 잘 됩니다.

풍부한 미네랄

전기분해과정에서 미네랄 함량이 높아집니다.

높은 환원력으로 다량의 수소 함유

산화를 억제하는 힘인 환원력이 크고 수소가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억제해 줍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육각수

전기분해한 알칼리이온수를 차게 해서 드시면 육각수 생성률이 높아집니다.



4대 위장증상 개선에 도움

소화불량 만성설사 위산과다 위장내 이상발효

! 본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수량 세정 중 교환

수량	세정 중	교환	모드
조림 / 뚝은 맛 제거 / 야채 데칠 때			강
모드 변경(5초)			
음용 / 밥 지을 때 / 차 마실 때			중
처음 마실 때			약
약 복용 / 분유 먹일 때			정수
교환 리셋(10초)			
얼굴 씻을 때 / 면(국수) 삶을 때			산성수

고객센터



1688-3113

ILDONG

일동생활건강(주)

www.ildongcare.com

반복되는 눈의 불편함 원인 중 하나는 각막 미세손상

“눈의 불편함 원인부터 치유하세요”

눈 불편 원인 3대유 점안액

PDRN 함유
리안® 점안액



각막 미세손상에는, 리안®



보습 | 영양공급 | 미세손상치유

PDRN 3가지 복합효과로 빠르게!!
PDRN 함유 리안®은 각막의 미세손상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의약품
광고심의필 2017-1417-0400

제조의뢰자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판매자

JEIL 제일헬스사이언스
소비자상담실: 080-549-000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점부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의사,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